

# 뇌사 김성민, 난치환자에게 새 삶 주고 떠나

### 평소 장기 기증 의사 ... 가족 동의로 콩팥·간장·각막 5명에 기증 '인어아가씨'로 뜨고 마약혐의로 추락 ... 파란만장 연기인생 마감

자살기도로 의식 불명상태에 빠져 뇌사판정을 받은 탤런트 김성민(43·사진)씨가 장기를 기증하며 26일 사망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부부싸움을 한 뒤 욕실에서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김씨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은 26일 오전 2시에 1차 뇌사판정을 내린 데 이어 같은날 오전 10시15분께 최종적으로 뇌사 판정을 내렸다.

평소 장기기증의 뜻을 밝혀왔던 김씨는 가족의 동의로 콩팥과 간장, 각막 등 장기를 기증해 5명의 난치병 환자에게 새 삶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

서울성모병원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병원에서 김씨의 뇌사와 장기기증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가족의 요청으로 열렸다.

김씨의 심폐소생술을 지휘했던 응급의학과 임지웅 교수는 "24일 오전 2시24분에 심장이 정지한 상태로 도착한 김씨에 대해 이승시간을 포함해 총 37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며 "이후 저체온치료 요법을 시행했으나 차도가 없었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오는 상태에서 자발 호흡이 없었으며 활력 징후가 불안정했다"며 "이에 따라 보호자에게 뇌사 가능성을 설명하고 25일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이식센터장 양철우 교수는 "뇌로 가는 혈류와 뇌파가 소실된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뇌간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두 차례 확인해 오늘 오전 10시10분 최종 뇌사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는 평소 가족이나 친구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며 "가족은 이런 말을 기억하고 불과 이틀 만에 장기기증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양 교수는 "콩팥과 간장, 각막 등 세 개 장기에

서 5명의 새 생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사 기관의 지휘에 따라 오늘(26일) 오후 6시에 적출 수술을 시작한다"고 했다.

김씨의 가족은 모든 장기를 이식하기를 원했지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서 주입한 약물 등 때문에 심장 등 다른 장기가 손상돼 의료진은 세 개 장기만 이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 교수는 "일반적으로 가족이 장기기증을 동의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 '끝난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김씨의 가족은 평소 김씨의 의지에 따라 단 이틀 만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씨의 장기 적출 수술은 5시간 내외로 소요될 예정이며, 수술을 마치고 호흡기를 떼게 된다. 김씨의 사망진단서에 적히는 사망 시간은 뇌사판정이 내려진 이날 오전 10시 10분이라고 의료진은 설명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타살 여부에 대해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배우 김성민(43)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김성민은 1995년 연극배우로 연기에 첫발을 디뎠다. 대학에서 사회체육학과를 전공한 김성민은 원래 프로골프 선수를 꿈꿨으나 부상으로 인생 향로를 바꿨다.

김성민의 인생은 2002년 MBC TV 일일극 '인어아가씨'로 안방극장에 데뷔하면서 다시 전환점을 맞았다.

임성환 작가가 대본을 맡은 이 드라마는 5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첫 작품에서 남주인공을 맡은 김성민은 장사희와 함께 스타덤에 올랐고, 그해 연말 MBC 연기대상에서 신인상까지 거머쥐었다.

김성민은 이듬해 임 작가가 집필한 MBC TV '왕꽃선녀'에도 남주인공으로 발탁됐다. 부잣집 도련님 이미지였던 김성민은 2006년 MBC TV 드라마 '환상의 커플'에서 아내에게 짝사랑하는 소심한 남편으로 등장, 변신에 성공했다.

김성민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2009년 3월 시작한 KBS 2TV 예능 프



로그램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서 이경규, 김국진 등과 호흡을 맞췄다.

곧잘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눈물도 흘린 김성민은 '김봉창', '올보' 등으로 불리며 사랑받았다. 그는 그해 연말 KBS 연예대상에서 최고 엔터테이너상도 받았다.

김성민에게 힘든 시기가 찾아온 것은 2010년 12월 마약 투약 사건으로 구속되면서다.

그는 당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저에게 실망하고 저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과 우리 가족들과 제가 사랑한 사람들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글을 남겼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성민은 영화, 드라마를 오가며 재기를 위해 노력했다. 2013년에는 4살 연상의 치료사인 이모 씨와 결혼해 가정도 꾸렸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올해 1월 출소했다. /연합뉴스

## “슬퍼서 아름다운 작품 나는 축복받은 배우”

tvN '디어 마이 프렌즈' 치매엄마 김혜자

“너무 슬퍼서 아름다운 드라마입니다. 오랫동안 꿈꾸고 있던 드라마를 드디어 한 것 같은 느낌이라 정말 행복해요.”

비단 일흔다섯 노배우의 생각만은 아닐 듯하다.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도 같은 느낌일 것이다.

tvN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72세 4차원 독거 소녀' 조희자를 연기하고 있는 김혜자를 25일 인터뷰했다.

지난 수십년 '한국의 어머니상'을 대표해 온 김혜자는 이 드라마에서도 자애로운 엄마다. 깔깔하고 경구가 바른, 유복하고 예쁜 우리들의 엄마다. 하지만 이 엄마는 수줍음도 많고 엉뚱한 면도 많은 발랄한 소녀이기도 하고, 머리 속에서는 망각이라는 병이 퍼져 나가는 치매 할머니이기도 하다.

김혜자는 “대본에 있는 여자를 어떻게든 표현하려 할 뿐인데 짐 쓸쓸하다. 근데 그래서 행복하다”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는 조희자를 ‘그 여자’라고 칭했다. 희자에게 붙은 ‘4차원 소녀’라는 애칭이 배우 김혜자에게도 어울린다는 평가다. 예쁘고 다정다감한, 꿈꾸는 할머니의 모습이다.

“내가 그런가? 모르겠어요. ‘소녀’는 철이 안 들었다는 애기인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 같아요. 소녀는 모르겠고... 이 드라마를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한다더니 신이 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이 생각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걸 느껴요. 이런 드라마 만나 연기하는 건 축복이죠. 내가 다시 배우로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 준 작품이에요.”

김혜자는 또 “내가 이렇게 작은 역할을 하기는 처음인데도 대본에서 볼 게 너무 많

다. 다섯 여자의 인생이 다 얽혀 있다 보니 연결된 신이 많아서 한두 마디 하려고 다 함께 기다리며 촬영하는 게 많다. 그동안 조연과 단역들이 이렇게 기다렸구나 싶은 생각에 미안하고 고맙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그래서 나는 이제 노회경 작가 작품 하고 싶지 않다. 너무 많이 생각해서...(웃음) 시청자 눈에도 듣고 싶고 작가 눈에도 듣고 싶다. 작가가 ‘난 그냥 썼는데 배우가 이렇게 표현해주네’라며 감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배타랑 동료 배우들과 함께 연기하는 게 너무 반가워요. 다른 배우들 연기 보는 재미도 커요. 정아 역은 ‘나문희 이상 갈 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하면서 매번 감탄하고 운여정은 어떻게, 고두심이 아픈 엄마에게 ‘나 속 썩이려고 병원 안가냐’고 야다구니 쓸 때가 막히지 않나. 박원숙이 옛 연인과 재회한 장면은 잠깐이지만 그간의 세월이 느껴졌고, 주현 씨는 얼렁뚱땅하는 것 같지만 다 표현해요. 친구씨는 처음으로 같이 연기하는데 ‘정말 잘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친구 씨를 이제야 처음 만난 걸 보면 아직 연기해야 할 게 많았어요.(웃음).”

끝으로 김혜자는 “배우로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작품을 하고 싶다. 이 드라마는 너무 슬퍼서 아름답다. 오랫동안 꿈꾸고 있던 걸 이뤄준 작품이다. 연극으로서도 1인 11역을 한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가 내 꿈을 이뤄줬다면, 드라마는 이 작품이다. 최근작 중 단연 이 드라마가 최고다. 내가 그 여자로 인해 쓸쓸한 것도 좋다. 인생에서 버릴 토막은 없구나 새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육성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결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50 2016 코피아메리카센터나리오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30 MBC 생방송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SBS 뉴스 4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이웃집 찰스(재)		00 닥터365 05 세상발견 유레카
12	00 KBS 뉴스12	00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재)	00 MBC 정오뉴스 20 통일 전광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열린공간 토크 talk(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크 특선 (방송의 진실)(재) 55 감성애니 하루(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TV블로그 꿈지락
2	00 2016 KBS배 전국 리듬체조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00 키즈 사이언스 5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3	55 튜튼생활체조	00 자동경부책상 위키2 30 TV유지원	00 MBC 뉴스 10 똑?똑! 키즈스쿨 55 깨미탐험대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55 감성애니 하루(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대>(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배틀트립 스페셜(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라(재)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뷰티풀 마인드 특별판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뷰티풀 마인드>	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닥터스>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 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획 길	10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12	20 해외결정드라마 <닥터 포스터>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UEFA 유로 2016 16강 <스페인 vs 프랑스>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성공시대 가는 한국인 (금속에 마법을 걸다 도둑 배영직) 06:10 EBS 특별기획 통찰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똥똥똥 유치원 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캐니멀 09:30 원더볼츠	09:40 라이더 토크 부모 (꿈보다 돈을 쫓는 아이들) 10:30 한국기행 (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치 멸치 볶음과 가지 오이 냉국) 11:00 세계테마기행(재) 11:4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감 <스토리 그곳>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출격!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츠(재)	14:00 미술탐험대 14:30 부릉부릉 부릉미즈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피터 래빗 15:35 꼬마기사 마이크 15:50 으랏차차 아이큐 16:00 캐니멀(재) 16:30 코코코 다코 16:45 똥똥똥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크 오늘 <태국의 신기한 시장> 20:50 세계테마기행 <동아시아 생명의 물길, 아무르를 가다 1부> 21:30 한국기행 <여자의 배다 1부 - 여섯 할머니의 평생 직장> 21:50 EBS 다크 프라임 <강대국의 비밀 - 로마시만권> 22:45 달라졌어요 23:35 시대공감
---	---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7일 (음 5월 23일 庚辰)

子	48년생 불면하다면 수정하거나 정리해버려도 무리가 없다. 60년생 지극히 상대적으로 작용하게 되리라. 72년생 가장 근본적인 사실부터 따져 보는 것이 옳다. 84년생 구조가 튼튼하고 합리적인 체계이다. 행운의 숫자 : 91, 09	午	42년생 상대의 말을 경청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54년생 기대에는 못 미치지지만 관용은 결과가 보인다. 66년생 비뚤게 쓰다 녀어 할 일이 벌어지겠다. 78년생 맹목적이었던 것이 오랫동안 후회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51, 06
丑	49년생 오매불망해오던 것이 소기의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61년생 개입하지 말고 잠자코 있는 것이 낫다. 73년생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면 오히려 흉이 된다. 85년생 전체 중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상징하는 의미는 크다. 행운의 숫자 : 16, 93	未	43년생 봉당을 빌려 주니 안방까지 달라는 이가 보인다. 55년생 이간해서는 이루기가 어려우니 특단의 조처를 취하라. 67년생 굳이 부담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 79년생 세차게 쏟아진 것이니 우선 피하고 봐야한다. 행운의 숫자 : 90, 75
寅	50년생 남을 의식하며 내밀하게 행하는 것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세이니라. 62년생 자신감 못지않게 침착성도 절실하 요 청된다. 74년생 예외없이 적용될 것이니 준비를 해야겠다. 86년생 생 앞에서도 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3, 46	申	44년생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공들여 왔던 것을 수확하는 때가 되었으리라. 56년생 하찮게 여겨 왔던 배의 역할이 크다. 68년생 천재일우의 귀중한 협력자를 만나게 되리라. 80년생 앞뒤 가리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74, 15
卯	51년생 툄라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것이 안전하리라. 63년생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다. 75년생 짐작할수록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마음을 비우자. 87년생 본인과 직접 얘기해야 겠다. 행운의 숫자 : 43, 37	酉	45년생 발상은 참신하나 진행 속도는 점진적이어야만 하느니라. 57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주의 하라. 69년생 고생은 없지만 순탄치만은 않다. 81년생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었던 바이다. 행운의 숫자 : 48, 50
辰	40년생 앞일까지 내다보고 결정하라. 52년생 어떻게 이론 성과 일수록 값어치가 있으리라. 64년생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선견지명이 절실하다. 76년생 균형을 잃는다면 부작용을 부른다. 88년생 한꺼번에 처리 하자. 행운의 숫자 : 98, 23	戌	46년생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허탕을 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하다. 58년생 처음에는 부담스럽겠지만 면역력이 생겨서 관찮을 것이다. 70년생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는 법이다. 82년생 행운의 기운이 길게 이어져 있다. 행운의 숫자 : 34, 03
巳	41년생 양호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53년생 서두르지 말라. 65년생 일취월장하리라. 77년생 고정관념이 있다면 핵심을 살릴 수 없을 것이다. 89년생 판단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결과는 장기간 영향을 미치겠다. 행운의 숫자 : 83, 97	亥	47년생 차선책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리라. 59년생 마음먹은 대로 해나기도 전혀 지장이 없었다. 71년생 실용성에 조금씩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83년생 잠시 오름세를 보다가 소강 상태에 빠지는 형태이다. 행운의 숫자 : 96, 2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